

목장에서 시작되는 저탄소 혁신

# 내몽골, 유제품산업 녹색 전환에 전걸음

록색목장 건설로 젖소 사육 정밀화,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저탄소 공장 구축, 친환경 포장 연구개발로 순환리용 실현... '중국 우유의 도시'로 불리는 내몽골자치구 후호트시가 유제품산업 전반 사육의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유명 유제품 생산기업인 이리(伊利) 그룹은 후호트시 이리 칩룩천(敕勒川) 생태스마트목장에서 사육하는 1만 2,000마리 젖소를 위한 스마트·저탄소 생활환경을 마련하였다.

스마트 사육장에는 무인 착유 로봇, 사료 공급 로봇 등 첨단기술 장비가 갖춰져있다.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대량의 메탄이 발생하는데 이 메탄이 체외로 배출되면 축산업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 된다." 이리그룹 안전생산관리부 황경·건강·안전관리 안운서(安云书) 총감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십여년전부터 산업사육에 대한 탄소배출을 추적해왔다면서 제품 전 수명주기의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볼 때 사육 목장 등 전단계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리 칩룩천생태스마트목장은 다양한 탄소 감축 시도를 진행했다. 사료 구조를 조정해 소에게 프로바이



7월 28일, 관광객들이 후호트 이리 현대스마트 헬스밸리 액체우유 글로벌 스마트 제조 벤치마크기지를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오틱스를 먹이고 유전자 선별을 통해 '저탄소 소'를 육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소 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 후 액체 비료는 바이오가스 발전과 경작지 환원에 사용하고 고체 비료는 처리후 목장에서 '소 침구'로 재사용했다. 또한 사육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친환경 발전을 실현했다...

이곳에서 짠 우유는 수키로메터 떨어진 이리 현대스마트 헬스밸리로 옮겨

겨져 가공 과정을 거친다.

이리 현대스마트 헬스밸리는 블록 쌓기와 같은 조립식 시공으로 대량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또한 첨단 에너지 회수 기술을 통한 램열·온열 에너지 순환 리용을 실현하여 매년 5,000여톤의 표준석탄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액체우유 생산작업장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자동화 생산라인이다. 고속 살균, 원료 배

합, 포장 등 수십개 공정을 아우르는 고속 포장 기계는 1초당 11팩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저탄소 생산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자가학습 AI 알고리즘과 탄소 계산 모델을 통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동시에 세척 과정과 자원 리용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탄소 감축 효과를 정량화, 시각화하고 있다." 현장 작업자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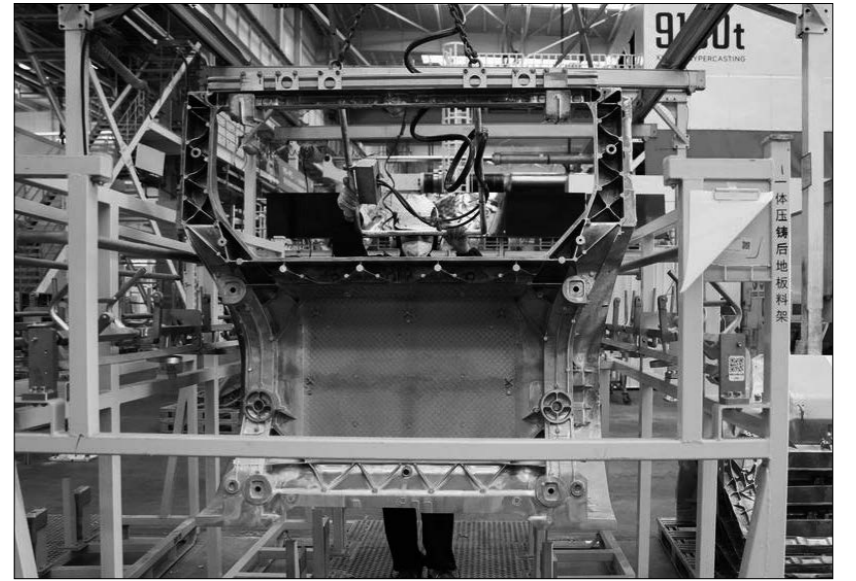
이 밖에 제품의 포장 역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관계자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포장박스가 폐지 팔프를 재활용한 것"이라면서 "건강 통로에 놓인 쓰레기통도 회수한 우유팩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리그룹 안전생산관리부 환경보호 전문가 동효령(董晓玲)에 따르면 이리는 이미 5개의 탄소제로 공장을 건설하고 탄소제로 제품 6종을 출시했으며 44개 공장이 국가급 녹색공장으로 선정되었다.

이리그룹 저탄소발전관리 매이(孟毅) 총감은 "비록 전체 산업사육의 탄소중립 실현까지는 아직 길길이 멀지만 우리 나라 유제품산업의 적극적인 시도는 글로벌 유제품 업계에 새로운 저탄소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었다."고 밝혔다.

/ 신화넷

북경, 2027년까지 5G 공장 20개 이상 세운다



6월 16일, 북경 샤오미자동차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 신화넷

북경이 2027년까지 5G 공장을 20개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된 <북경시 5G+ 산업 인터넷 혁신발전 실시방안(2025년-2027년)>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5G 산업 전용 네트워크 총 50개 이상 구축, 5G 응용 솔루션 공급업체 5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한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북경은 '5G+ 산업 인터넷' 인프라 건설을 가속하고 북경시 제조업 중점 발전 구역과 기업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5G 네트워크 최적화, 산업 5G 전용 네트워크 및 5G-A 네트워크 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북경시의 중점기업들이 5G 독립 전용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추진하

겠다는 계획이다.

북경시경제정보화국 관계자는 "클라우드·네트워크·컴퓨팅·제어" 통합을 추진하고 산업 컴퓨팅 시설 구축을 확대해 설비·시스템·제조사간 산업 데이터가 원활하게 리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경시경제정보화국에 따르면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장비, 바이오의약 등 북경시 선도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5G 공장 건설 및 대표 솔루션 보급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북경시는 5G 공장의 5G-A 업그레이드 배치를 속도 높이고 5G 공장의 평가 인증 업무를 추진하여 5G 공장 건설의 수준과 규모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 신화넷

## 오문, 관광·미스산업 쌍끌이 성장... 경제 활력 '뽐뽐'

오문특별행정구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다달은 가운데 오문의 여러 관광지에는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1월-7월 오문을 찾은 인바운드 관광객은 2,200만명을 넘어서고 카지노를 제외한 관광소비총액은 182억 5,000만오문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

비 각각 14.9%, 4.6% 증가했다. 또한 오문은 3년 연속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福布斯旅游指南)에서 가장 많은 5성급 호텔을 보유한 도시로 선정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문 경제 다원화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미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산업 역시 올 상반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오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9.3% 늘어난 총 918건의 전시·회의 행사가 열렸다. 그중 비즈니스 및 경영을 주제로 한 행사가 가장 많았고 관광 및 정보기술 관련 행사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오문은 미스 업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M&C ASIA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최우수 아시아 회의 목적지'로 선정됐다.

오문은 대형 행사의 혼풍을 타고 소비 진작에도 힘을 받는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 15회 전국체육대회'의 개최 도시중 한곳으로 선정된 오문은 오문중화총상회와 공동으로 소비 행사를 개최해 9월 1일-11월 30일 총 4억 8,500만오문달러 규모의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 신화넷

록해공 촘촘 네트워크...

## 월항오대만구, '세계적 공항군' 조성 다그쳐

월항오대만구의 '세계적인 공항군' 건설 청사진이 점차 현실로 되고 있다.

7월 30일, 광주 백운(白云)국제공항에서 제 5 활주로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나라에서 두번째이자 대만구 처음으로 5 활주로 공항이 탄생했다. 8월 3일에는 심수 보안(宝安)국제공항 제 3 활주로 비행 검사가 완전히 완료돼 내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항왕국제공항 제 3 활주로 시스템이 정식 가동되면서 활주로 13개를 갖춘 월항오대만구는 곧 14·15번째 활주로를 추가하게 되었다.

월항오대만구에서는 광주, 심수, 항왕 등 3개의 중추 공항과 주해, 오문 2개의 주요 간선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해주, 불산 등 2개의 지선 공항을 보유하고 항로 네트워크는 전세계 200여개 도시와 연결되어있다.

지자체 월항오대만구 7개 공항의 연간 거래 처리량은 연인원 2억명을 넘어섰다. 이는 월항오대만구 도시권의 활력과 대외개방 확대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보여주는 바 공항 확장 사업의 든든한 기반으로 되고 있다.

/ 신화넷

공항군의 발전은 월항오대만구 내 도로·철도·항구 등 교통 기반 시설간 연계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광심항(广深港)고속철도와 항주오(港珠澳)대교 등 대형 인프라가 연이어 완공되면서 항왕국제공항은 월항오대만구내에서 촘촘하고 다차원적인 록해공 연계 운송망을 구축했다.

심수 보안국제공항은 심중(深中)통로 개통을 계기로 중산(中山)과 강문(江门)에 두개의 항공 거점을 마련하고 심수-중산, 심수-강문 두개의 급행 로선을 개통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 노력에 힘입어 월항오대만구 공항군은 규모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30년까지 월항오대만구 항공 리객과 화물 수송량이 각각 연인원 3억 8,700만명, 2,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월항오대만구 공항군은 '항왕국제공항 환승+광주 아시아·태평양 중추+심수 신흥시장 직항'의 다층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주요 글로벌 경제체와 신흥시장을 아우르는 강력한 글로벌 연계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 상해협력기구 천진정상회의 뉴스센터 로봇 인기

2025년 상해협력기구 천진정상회의의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천진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상회의의 뉴스센터의 다양한 로봇들이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사건은 8월 30일, 2025년 상해협력기구 천진정상회의의 뉴스센터에서 한 녀성이 다중 모드 상호작용 로봇 '소함'(小舍)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

# 朝夕奔梦

友诚敬爱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业国治正等由谐明主强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图说  
我们的价值观

河南南阳 任明兆作